
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6. 28(화) 총 4매(본문3, 붙임1)	
담당 부서 행복주택개발과 철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박연진, 서기관 이중기, 주무관 하태아 • 044-201-4531, 4532 • 과장 권혁진, 사무관 남승헌, 주무관 이화섭 • 044-201-3942, 3945	
보도일시	2016년 6월 2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방송인터넷은 6. 29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·고시

- 총 38.6만 m² ...행복주택 1,900여호 등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오늘(6.29) 「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」를 확정·고시하고, 지구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.
 - 작년 7월 말 주민공람 개시 후 서울시, 강남구 등 관계지자체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, 이번달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.
 - 지구 면적은 총 38.6만 m²(11.7만평)이며, 구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. 사업부지 중 16.6만 m²(5만평)는 한국철도시설공단(KR)이 철도시설부지로 매입하여, 수도권 고속철도(수서~평택) 수서역('16년 하반기 개통) 등 철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.
 - 특히, 동 지구는 고속철도 수서역을 통해 5개 철도노선* 이용이 가능하고, 외곽순환도로가 연결해 있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아, 입지적으로도 우수한 지역이다.
- * (운영중) 지하철 3호선, 분당선 (공사중) 수도권고속철도(수서~평택),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삼성~동탄) (계획) 수서~광주복선전철

- 이러한 역세권 입지 특성을 살려, 행복주택 1,900여호를 포함하여 업무·상업·주거기능이 조화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 - 수서역사부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를 복합개발하고, 나머지 구역은 업무·유통구역과 주거생활구역으로 개발한다.
 - 업무·유통구역은 업무·연구개발(R&D)·첨단유통 등의 용도와 기능을 도입한다. 특히, 동 구역에는 수서·문정지역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용지를 최대한 반영하고, 동 용지의 공급 및 시기조정 등은 관계기관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 - 주거생활구역은 행복주택 1,900여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2,800여호를 건설한다.
 -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서울시·강남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 수립 시 확정된다.
 -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한국철도시설공단(KR)이며, 향후 관계기관의 공동사업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, 참여지분·업무분담 등 제반사항을 관계기관간 다자간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구지정과 함께 서울시, 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모여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.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 추진팀을 구성하고, 내년쯤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.
 - 동 추진팀에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교통문제,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, 아래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.

《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방향 》

- ① 예상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**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**
- ② 정체가 심한 **밤고개길 확장(왕복6→8차로)**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,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**조기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**
- ③ 이외 교통시설 등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**전문기관의 연구 및 서울시·강남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 마련**

- **하동수 공공주택추진단장은 “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, 수서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행복주택이 많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** 면서,
 - “**동 지역이 서울 동남권의 핵심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인 만큼,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, 전문가,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.**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이종기 서기관(☎ 044-201-45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위치도 및 현황도

□ 위치도



□ 현황도

